

배움공동체에 대한 탐색적 연구 : covid19 언택트시대를 중심으로

정수정¹, 임홍남^{2*}, 박홍재³

¹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²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특별연구원,
³Western Sydney University, Social Work & Community Welfare 교수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earning Community: Focusing on the Covid19 Untact Era

Su-Jeong Jeong¹, Hong-Nam Im^{2*}, Hong-Jae Park³

¹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illa University
²Special Researcher, Educational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³Professor, Dept. Social Work & Community Welfare, Western Sydney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언택트시대의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아동을 위한 배움공동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20일 까지 1년 동안의 빅데이터를 '언택트+배움공동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어빈도 및 네트워크분석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코로나19', '지원', '온라인' 등의 단어가 언택트시대의 배움공동체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배움공동체 내에서 마을의 교육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마을 활동가와 주민협의회 등이 뜻을 모아 코로나19로 멈춰진 아동의 일상을 회복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지원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단어빈도 분석을 통해 배움공동체와 관련된 핵심키워드를 파악하고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경향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아동의 공적 돌봄·교육의 틈새와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배움공동체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시사점을 가진다.

주제어 : 배움공동체, 탐색적 연구, 코로나19, 언택트시대, 빅데이터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discourse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rning community in the untact era, and discusses the directions that learning communities for children could explore and consider in the pandemic situation and beyond. For this purpose, big data for one year, from January 20, 2020 to January 20, 2021, were collected through internet portal sites (including including Google News, Daum, Naver and other News surfaces), using two keywords "untact" and "learning community", and analyzed by employing a word frequency and network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several important terms, such as 'village education community', 'operation', 'activity', 'corona 19', 'support', and 'online' are closely related to the learning community in the untact era.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lso hav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he learning community as an alternative model to fill the existing gaps in public care and education for children during the prolonged pandemic and afterwards. In conclusion, the study findings highlight that it is meaningful to identify key terms and concepts through word frequency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social trends and issues related to the learning community.

Key Words : Learning Community, Exploratory Study, Covid19, Untact Era, Big Data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C2A04082033).

*This article is extended and excerpted from the conference paper presented at ICCT2021(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vergence Technology in 2021)

*Corresponding Author : Hong-Nam Im(abcd1841@hanmail.net)

Received February 3, 2022

Revised May 5, 2022

Accepted May 20, 2022

Published May 28, 2022

1. 서론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다. 오늘날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집밖 외출이 자유롭지 않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 혹은 코로나19 음성이라는 PCR 검사 없이는 식당 출입에도 제약이 가해졌다. 이러한 글로벌 팬데믹으로 우리는 언택트라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경험함에 따라 한국의 아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기도 하는 등 [1], 급작스러운 사회변화로 인해 아동이 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2]. 코로나19 이전의 시기와 그 이후의 아동 일상을 비교해보았을 때 아동의 정서적 불안이 증가했으며, 특히 또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고 있어 많은 아동들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높아진 불안감으로 험겨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1]. 또한 아동이 친구들과 교제 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결국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이나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 시켰다[3]. 이러한 보고를 통해 성인들이 우려해온 결과가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급변화한 사회 환경 속에서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재난상황으로 더 많은 영향을 장기적으로 받게 되었으며, 이는 성장발달에 결정적 시기를 거치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4]. 특히나 아동 돌봄에 관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동은 보호자의 보호와 돌봄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경험 할 수밖에 없게 된다[5].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은 등교 중지 및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찾고 있다[6]. 이처럼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아동 돌봄·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요에 대한 공급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7].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동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대면교육에서도 많은 제약이 부여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이외에도 아동이 이용해왔던 실내·외 시설들이 폐쇄됨에 따라 아동의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 받게 되었다[8]. 이에 우리는 아동의 일상생활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아동을 돕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할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어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1]. 그러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가족의 핵가족화 등으로 자녀 돌봄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아동의 돌봄과 교육 공백에 대한 문제해결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7]. 이제는 코로나19 언택트시대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길 기다리기 보다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면서 동시에 아동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때라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지역사회 내 공동체에 주목했다.

지역 내 공동체는 상호작용, 유대감, 지역성 등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지역 내 거주하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한 유대를 바탕으로 구성된 조직이다[9]. 아동은 또래 및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형성해나가고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사회 적응 방법을 연습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10].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활동반경이 제한됨에 따라 보호자 외에 또래집단과 접촉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기에 아동의 성장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공동체(communis)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라틴어의 '함께'와 '봉사한다'는 뜻이 합성된 용어로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즉, 공동체의 구성요소에는 상호작용과 참여, 의미 있는 관계성, 상호 의존성, 개인적 관점에 대한 관심, 공유된 이익과 신념, 등이 포함된다[11]. 특히 비대면 시대가 도래된 오늘날, 아이들의 교육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로 사료된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하여 아동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공동체에 의한 배움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환경적 적응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10]. 즉,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면으로만 교육과 돌봄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다면, 이제는 비대면과 대면이 함께 고려된 새로운 형태의 돌봄 및 교육서비스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정 내 돌봄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은 더욱 증가되고 학교와 같은 공적 교육기관의 휴교로 인해 아동 돌봄과 교육의 공백에 대

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지역기반 공동체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18].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의 배움공동체에 대한 관련 연구는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배움공동체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아동을 대상으로 기존 공적 교육체계의 한계 보완과 돌봄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배움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택트시대에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아동을 위한 배움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이를 통해 배움공동체 구축의 중요성과 배움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 및 관련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배움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데이터 수집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언택트의 배움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살펴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의 교육적 대안으로 배움공동체가 고려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가 확인되어 첫 발표된 시점인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의 빅데이터를 인터넷 포털사이트(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뉴스)를 통해 '언택트+배움공동체'를 키워드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국내발병 후 1년 가지로 데이터 수집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특정집단 및 시설중심의 1,2차 감염유행에 이어 가족, 학교 등 일상적 공간 및 생활공동체에 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확산된 3차 대유행시기가 국내 발병후 1년이 된 시점이라 2021년 1월 20일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2 분석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언택트 시대의 배움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네트워크 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수집부터 데이터 정제, 분석 그리고 시각화까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Textom을 활용하여 '배움공동체'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1·2차 정제를 실시하였다. 1차 정제 시에는 Textom의 '바로편집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명사를 중심으로 텍스트 마이닝이 진행되었으며, 2차 정제 시에는 띄어쓰기 등에 의해 의미전달이 불분명한 경우 데이터를 검토하여 단어를 원래의 의미로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마을'과 '교육공동체'는 마을교육공동체로 변환하였고, '미로초등학교'와 '두타분교'는 초등학교로 유목화하였다.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빈도 상위 200개 노드를 선정하고 200 × 200 1-모드 매트릭스 데이터 셋을 작성하였다[12].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내의 노드들 간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해 예고 네트워크 분석이 실시되었으면 각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위해 NetDraw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단어빈도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핵심키워드인 배움공동체('언택트+배움공동체')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수집된 데이터에서 총 2차에 걸친 정제과정을 거쳐 상위 50개의 단어를 추출하였으며 그중 상위 30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1. Frequency Analysis of keywords Related to Learning Community (Top 30 Keywords)

| Ranking | Keyword | N |
|---------|-----------------------------|-----|
| 1 | Village education community | 794 |
| 2 | operation | 662 |
| 3 | activity | 585 |
| 4 | education | 499 |
| 5 | school | 489 |
| 6 | Future education | 455 |
| 7 | covid-19 | 407 |
| 8 | student | 407 |
| 9 | support | 373 |
| 10 | online | 356 |
| 11 | class | 305 |
| 12 | Elementary School | 297 |

(Continued...)

Table 1. Frequency Analysis of keywords Related to Learning Community (Top 30 Keywords)

| Ranking | Keyword | N |
|---------|--------------------------------|-----|
| 13 | growth | 272 |
| 14 | lifelong learning | 218 |
| 15 | teacher | 189 |
| 16 | share | 189 |
| 17 | continuing | 183 |
| 18 | chance | 181 |
| 19 | offer | 180 |
| 20 | library | 171 |
| 21 | Park | 168 |
| 22 | distance learning | 163 |
| 23 | learning school | 151 |
| 24 |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149 |
| 25 | reading education | 147 |
| 26 | literacy education | 146 |
| 27 | Cooperation | 144 |
| 28 | school district | 141 |
| 29 | Social | 141 |
| 30 | Gyeonggi Dream School | 137 |

배움공동체(언택트+배움공동체)에 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시 출현에 따른 단어 빈도를 분석 한 결과 'Village education community'가 794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뒤로 'operation'이 662회, 'activity'는 585 회, 'education'은 499회이다. 또한 school(489), Future education (455), covid-19(407), student(407), support(373), online (356), class(305), Elementary School(297), growth(272), lifelong learning(218), teacher(189)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share', 'continuing', 'chance', 'offer', 'library' 등이 그 뒤를 이어 중요 키워드로 확인되었다. 배움공동체 관련 단어 중 상위 50개의 단어로는 인적 환경(마을교육공동체, 학생, 교사, 아이, 교육감), 물리적 환경(운영, 학교, 온라인, 초등학교, 도서관, 공원, 배움학교, 교육청, 사회, 경기꿈의학교, 지역, 통합운영학교, 디지털), 제도적 지원(코로나19, 지원, 활동, 나눔, 제공, 방식, 모임, 방침, 강화, 중심, 목표), 학문적 관심(미래교육, 수업, 교육, 평생학습, 원격수업, 독서교육, 문해교육, 학습, 평생교육), 사회적 반응(성장, 지속, 기회, 협력, 참여, 소통, 실천, 삶, 행복)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움공동체의 유목화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원 데이터의

수집 내용을 분석해보면, 우선 학교의 개혁이 연기되고, 대면수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사, 교육공동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나서서 인적·물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였고, 돌봄과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에 대한 공백을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혼합교육을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지역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 자치와 교육 자치를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학생과 시민 등을 이어주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누구라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교육 및 배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수집된 데이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2 네트워크 분석

배움공동체(언택트+배움공동체)와 관련된 온라인 수집 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상위의 50개 주요 단어를 매트릭스로 변환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의 유의성 검정결과, z-score값이 6.9969이고, P-value가 0.000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움공동체(언택트+배움공동체)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시각화해보면 다음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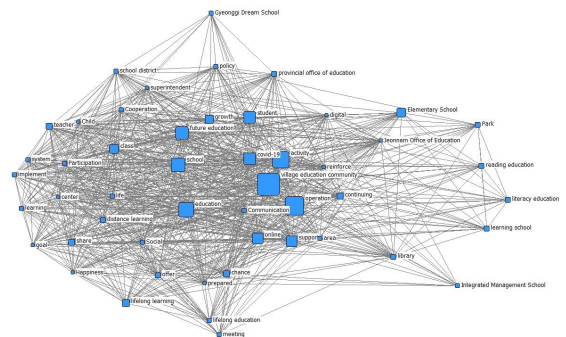


Fig. 1. Network Visualization of Learning Community (Untact + Learning community)

배움공동체(언택트+배움공동체)의 네트워크 시각화 자료를 살펴보면, 노드의 연결망 속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교육, 학교, 미래교육, 코로나19, 학생, 지원, 온라인 등의 단어가 높은 연결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움공동체(언택트+배움공동체)에 대한 상위 50단어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결정도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등을 계산하였고, 각 핵심단어들이 배움공동체(언택트+배움공동체)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핵심단어에 대한 중심성(Centrality)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entrality to the key words of 'untact + learning community'

| No | Keyword | Degree Centrality | Closeness Centrality | Between Centrality |
|----|--------------------------------|-------------------|----------------------|--------------------|
| 1 | village education community | 4899 | 49 | 23.758 |
| 2 | operation | 4190 | 49 | 23.758 |
| 3 | activity | 3818 | 50 | 19.539 |
| 4 | education | 2527 | 55 | 7.255 |
| 5 | school | 2484 | 54 | 10.247 |
| 6 | future education | 1794 | 56 | 8.37 |
| 7 | covid-19 | 1889 | 50 | 19.539 |
| 8 | student | 1969 | 56 | 9.161 |
| 9 | support | 1830 | 51 | 18.687 |
| 10 | online | 1531 | 52 | 14.833 |
| 11 | class | 1508 | 58 | 3.68 |
| 12 | Elementary School | 2505 | 71 | 3.5 |
| 13 | growth | 1594 | 55 | 8.767 |
| 14 | lifelong learning | 874 | 68 | 0.995 |
| 15 | teacher | 911 | 60 | 3.614 |
| 16 | share | 862 | 61 | 3.274 |
| 17 | continuing | 1227 | 53 | 14.353 |
| 18 | chance | 1043 | 60 | 5.376 |
| 19 | offer | 1024 | 61 | 4.885 |
| 20 | library | 1456 | 69 | 5.239 |
| 21 | Park | 1411 | 80 | 0.724 |
| 22 | distance learning | 764 | 58 | 4.626 |
| 23 | learning school | 1400 | 81 | 0.221 |
| 24 |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1035 | 67 | 4.16 |
| 25 | reading education | 1402 | 79 | 0.748 |
| 26 | literacy education | 1395 | 82 | 0.029 |
| 27 | Cooperation | 940 | 59 | 4.876 |
| 28 | school district | 913 | 67 | 2.024 |
| 29 | Social | 500 | 58 | 4.451 |
| 30 | Gyeonggi Dream School | 923 | 85 | 0 |

배움공동체(언택트+배움공동체)와 관련된 주요 30개 단어들에 대한 중심성을 분석해본 결과 우선, 연결정도중심성(Degree Centrality)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교육', '학교', '미래교육', '코로나19', '학생', '지원', '온라인' 순으로 나타났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네트워크 노드가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많은 연결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는 것[13]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언택트+배움공동체'와 연결된 주요 단어들 중에 상위 단어 일수록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을 분석한 결과 '통합운영학교', '경기 꿈의 학교', '문해교육', '배움학교', '공원', '독서교육', '모임', '평생교육', '초등학교', '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근접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들과 얼마나 근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노드가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근접한지를 보여준다 [13]. 또한 가장 짧은 단계로 연결망 내의 다른 노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내에서 빠르게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14]. 이에 네트워크 전역에서 가장 일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노드가 근접중심성의 상위 단어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근접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데이터 연결망 내의 모든 단어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운영학교', '경기 꿈의 학교', '문해교육', '배움학교', '공원', '독서교육', '모임', '평생교육', '초등학교', '도서관' 등의 단어가 연결망 구조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분석한 결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코로나19', '지원', '지역', '강화', '소통', '온라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중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위치에 있는 단어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즉,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코로나19', '지원', '지역', '강화', '소통', '온라인' 등의 단어는 연결망 구조 내에서 나머지 다른 단어들과의 연결을 위한 매개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여, 언택트 시대의 배움공동체에 대한 단어빈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코로나19, 지원, 온라인 등의 단어가 배움공동체와 관련해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난 중요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즉, 배움공동체와 관련하여 코

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역사회의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교육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3 결과 요약

언택트 시대의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아동을 위한 배움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본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를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단어빈도를 분석한 결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교육', '학교', '미래교육', '코로나19', '학생', '지원', '온라인' 등의 순서로 빈도 결과가 나왔다.

둘째, 배움공동체와 관련하여 주요 단어들에 대한 중심성을 분석해본 결과, 우선적으로 연결정도중심성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교육', '학교', '미래교육', '코로나19', '학생', '지원', '온라인' 순으로 나타나 단어빈도에서 추출된 결과와 유사했으며, 상위 단어일 수록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근접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통합운영학교', '경기 꿈의 학교', '문해 교육', '배움 학교', '공원', '독서교육', '모임', '평생교육', '초등학교', '도서관' 등의 단어가 연결망 구조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개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코로나19', '지원', '지역', '강화', '소통', '온라인' 등의 단어를 연결망 구조 내에서 나머지 다른 단어들과의 연결을 위한 매개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정도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교육', '학교', '미래교육', '코로나19', '학생', '지원', '온라인' 순으로 나타났다. 연결정도중심성은 연결망 내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다른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에 언택트 배움공동체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연결정도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로 나타났으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단어빈도에서도 가장 많은 빈도로 출현한 단어이므로 마을교육공동체 단어가 사회적 담론에서도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사회적 담론에서 언택트 배움공동체의 주된 운영체가 마을교육공동체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도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돌봄과 교육의 위기를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극복해야함을 제시한 바 있다[19, 20]. 다시 말해 코로나19의 언택트 상황에서도 학습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포용적인 지역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온 마을이 학교인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접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통합운영학교', '경기 꿈의 학교', '문해 교육', '배움 학교', '공원', '독서교육', '모임', '평생교육', '초등학교', '도서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접중심성은 각 단어가 연결망 구조 내에서 단어들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의미하고, 이를 통하여 연결망 내에서 가장 영향력을 지닌 단어를 발견하고, 네트워크 내에서 그 단어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언택트 배움공동체 관련 네트워크에서는 통합운영학교가 다른 단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모색하기 위한 통합운영학교 및 대안학교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언택트 배움공동체는 통합교육과정 운영 및 대안학교 등을 통한 내실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내에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자하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코로나19', '지원', '지역', '강화', '소통', '온라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은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와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개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연결망 내 정보를 통제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언택트 배움공동체 관련 네트워크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움공동체의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 있는 중개자 역할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단어빈도 및 네트워크분석 결과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동', '코로나19', '지원', '온라인' 등의 단어가 언택트 시대의 배움공동체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움공동체 내에서 마을의 교육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마을의 활동가와 주민협의회 등이 뜻을 모아 코로나19로 멈춰진 일상을 회복하고 관계 회복을 온라인과 같은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아동에게 돌봄·배움과 같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에 코로나19시대와 나아가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의 마을커뮤니티와 배움공동체 구성 및 마을의 교육여건 등을 점검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 구축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언택트 시대의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살펴보고, 아동을 위한 배움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배움공동체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언택트+배움공동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단어빈도분석과 네트워크분석 등을 실시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사회가 일상화됨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되고 있다[7]. 특히 저소득층 혹은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이 증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 돌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돌봄·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다[15].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가정의 아동을 모니터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 마을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교육자원 연계와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소년 및 아동의 욕구(needs)를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그리고 마을의 공동체는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 활동을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회의 혹은 화상 교육을 준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아이 돌봄·교육을 위한 강좌가 온라인상에서 정기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 마을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에게는 코로나19 시대에 학업적 손실과 심리·정서적지지 및 보살핌을 지역사회 내 돌봄 공간 속에서 받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며, 아이들의 규칙적 생활리듬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돌보아야한다[16]. 매일 누적되는 돌봄과 교육의 격차가 아동의 미래와 삶의 질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아동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17]. 이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손실을 경험하지 않고 바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네, 지역사회, 국가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더욱이 사람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는 요즘, 인간 관계성 회복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나 교육과 돌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마을의 배움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교육격차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통한 관계회복과 삶의 배움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는 한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내의 배움공동체를 통해 관계성 회복과 돌봄 및 교육에 대한 공백의 보완이 가능하며, 언택트 시대에 배움공동체가 교육과 돌봄의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단어빈도 분석을 통해 배움공동체와 관련된 핵심키워드를 파악하고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경향을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동의 공적 돌봄·교육의 틈새와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배움공동체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가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더불어 이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의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 탐색해보고자 수행되었으므로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보지는 못했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역기반 공동체의 구성요소나 청소년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이 공동체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왔다[7, 10].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배움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변인들을 개인, 사회, 환경적으로 살펴본다면 배움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더불어 실천에 대한 구체적 시사점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REFERENCES

[1] Y. M. Shin & S. B. Kwon.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daily life and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poor families due to COVID-19.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 Children & Rights*, 25(2), 227-245.
- [2] I. J. Chung. (2021). *In-depth research on children's daily life before and after COVID-19 and exploring ways to recover to a happy daily life*. ChildFund Korea, Child Welfare Forum Theme Presentation Manuscript.
- [3] ChildFund Korea. (2021). *Post-COVID-19, children begin their happy daily life: ChildFund Korea Child Happiness Index*. The 19th Child Welfare Forum Resources.
- [4] J.S. Lee & S. J. Kim. (2009). A Study on Daily Life Habits Related with the Physical Health of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3), 177-196.
- [5] M. H. Park. (2020).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the educational gap in the Context of COVID-19: A Case Study of Gyeonggi Provinc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30(4), 113-145.
DOI : 10.32465/ksocio.2020.30.4.005
-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All together care business guide*. (Online) https://dadol.or.kr/biz/biz_intro
- [7] J. Y. Lee & M. J. Hwang. (2021). Exploring Factors That Inhibit and Activate Community-Based Child Care Community Activities-Focusing on Jeonbuk Area Cases.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25(3), 69-85.
- [8] G. I. Lee. (2021). The necessity of youth physical activity and role and task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in COVID 19. *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 28(1), 175-198.
DOI : 10.21812/kjsp.2021.1.28.1.175
- [9] S. H. Ko et al. (2020). Activation of Care Services involving local communities in Chungnam province. *Chungnam Studies*, 4(1), 1-26.
- [10] H. S. Kim & I. S. Shin. (2020).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Experience Activities and Community Consciousness, School Adapt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5), 1729-1744.
- [11] J. Westheimer. (1998). *Among school teachers: Community autonomy and ideology in teachers' work*.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 [12] S. P. Borgatti, M. G. Everett & J. C. Johnson. (2013). *Analyzing social network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13] S. S. Lee (2021). *Network analysis methods*. Seoul: Nonhyung.
- [14] Y. H. Kim & Y. J. Kim. (2021). *Social network analysis*. Seoul: PYbook.
- [15] J. G. Lee. (2021). *Elementary care managem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16] S. J. Lee, S. J. Jeong & D. Y. Yoo. (2021). *A comparison of children's happiness according to the status of poor households and daily balance during the COVID-19 period*. 2021 Social Welfare Joint Symposium Presentation.
- [17] I. J. Chung, S. J. Lee & H. J. Kang. (2020). Changes in Children's Everyday Life and Emotional Condition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9(4), 59-90.
DOI : 10.24300/jkscw.2020.12.69.4.59
- [18] J. J. Lee. (2020). After COVID-19 : Today's Doctrinal Worship and the Worship of the Early Christ People in the First Two Centuries. *THEOLOGICAL THOUGHT*, (191), 147-176.
DOI : 10.35858/sinhak.2020..191.006
- [19] S. B. SIM. (2021). *In the era of Corona,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movement and the request of ecological pedagogy*. The Korean-German Society for the Educational Studies, Conference Resources, 1-21.
- [20] S. B. SIM. (2021). *How to overcome the crisis of covid 19, village education community movement and ecological pedagogy care and education?* Seoul: Salilmter.

정 수 정(Su-Jeong Jeong)

[정회원]



- 201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 박사)
- 2021년 9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 가족
- E-Mail : jsj@silla.ac.kr

임 흥 남(Hong-Nam Im)

[정회원]



- 2020년 8월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교육학 박사)
- 2022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특별연구원
- 관심분야 : 유아교육, 생태유아교육, 동양철학
- E-Mail : abcd1841@hanmail.net

박 흥 재(Hong-Jae Park)

[정회원]



- 2011년 9월 : The University of Canterbury (New Zealand) 박사 (사회복지)
- 2017년 1월 ~ 현재: Western Sydney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세대간 관계, 노인 복지, 이민 및 다문화
- E-mail: H.Park@westernsydney.edu.au